

금년 가을에는 서울에서 세계적인 체육의 제전인 올림픽이 열린다. 그 날이 하루 하루 다가오면서 우리의 온 민족의 흥분은 더 해가며 또한 세계의 이목도 또한 서울로 집중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세계적인 체육의 행사보다 두 달 앞선 금년 7월에는 호주에서 두뇌의 올림픽인 수학올림피아드가 열리기로 되어있다.

아마도 수학올림피아드라고 하면 그 행사의 규모나 참가하는 나라의 수에 있어서는 올림픽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적은 것이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사이에 이 행사의 성격이나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의 경시대회인 수학올림피아드가 루마니아에서 동구권 7개국사이에 처음 시작되었던 것은 1959년의 일이다.

그 후 이 행사가 매년 거듭하여 금년에는 벌써 29회째가 되며, 참가국도 약 50여개국에 이른다. 아직 북한은 이에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불완전 이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발 앞서 금년 88올림피아드에 우리나라 대표가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어 있다.

이미 몇년전부터 이 행사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주최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문교부를 통해 받아 왔으나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신청이 보류되어 왔었다. 참가가 보류된 가장 큰요인은 여기 소요되는 경비가 마련되지 못하였던 점이다. 줄 잡아서 최소한 1억원이 예상되었다. 물론 이 돈이 크다면 큰 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탁구선수나 축구선수 한명 또는 두명을 기르는 비용보다는 적은 돈이다.

체육올림픽이나 국제적인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경비도 아깝지 않게 쓰면서도 문화적인 올림픽인 이 수학 올림피아드에 그 만한 경비가 없어 몇년간을 참가하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다.

“ 기초과학의 연구열이

이러한 몇가지 어려운 사정을 각계요로에 탄원 하던중 마침 한국과학재단이 7,000만원을 이 사업을 위해 지원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것은 작년의 일이다. 대한수학회가 이 행사에 따르는 모든 준비를 맡아 줄 것을 전제로한 이 요청을 받아들인 학회로는 이를 쾌히 수락하였으나, 막상 이 행사에 따르는 작거나 큰일이 우리로서는 그리 만만치 않았다.

대한수학회 대부분이 대학교수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자기의 연구와 강의에 바쁜 분들이다. 전국의 고등학생중에서 수학에 자

數 學

올림피아드

林 禎 垈
(延世大數學科 교수)

질이 있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또 선발한 학생을 겨울방학 한달동안 특별교육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사들의 진행에 앞서서 이 수학올림피아드의 홍보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믿었다. 전국에 걸쳐 홍보가 되지 않고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보에 있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야 했다.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우리 대한수학회로서는 이 문제 또한 만만치 않았다. 마침 국영TV 방송인 KBS의 책임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약 10일동안 매일 이 행사의 예고를 전국 TV화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에 낼 수 있었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이 기간에 나간 홍보비를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원도 넘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의의나 그 중요성이 모든 관계 당국자로부터 쉽게 호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결과 지금에 와서는 고등학교 학생과 이일에 관심을 가질만한 시민사이에는 상당히 넓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행사의 목적이 참가 자체에만 뜻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금년에 처음 참가하기 때문에 메달을 타게 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의 어느 민족에 비교하여도 우수한 문화민족인 만큼 멀지않아 반드시 금상 또는 은상, 아니면 동상은 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이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한 상을 타는 데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한 상은 우리의 보다 높은 목적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여러면에서 시급을 요하는 과제가 많이 있다. 우리의 안보문제를 위시해서 국민복지문제와 같은 난제 등, 모두가 그러하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직은 선진국도 아니다.

이제 겨우 개발도상국의 범주에서 벗어 나려는 수준이다.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사이의 견제세력도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어려운 위치에 놓인 우리로서 기초과학의 육성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이에 눈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었던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제, 앞으로의 경제적 발전을 지속해 가는 데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이 따라야 할것은 너무도 명백한 일이다. 날이 갈수록 국제 사회에서의 첨단과학의 경쟁이 더욱 가열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뒷받침없이는 경제적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의 연구가 뒤 따라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쉬운 이 명제를 알면서도 현실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였던 것이, 또한 자주 지적되어 온 문제의 하나이다.

오늘날 선진국 여러나라를 보면 나라마다 기초과학분야의 연구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미흡하다는 불평이다.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실정은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최근 늦게나마 관계 당국에서 기초과학육성방안이 여러면에서 연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금은 마음의 위안을 느끼게 한다.

수학 올림피아드가 이와같은 시류와 함께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된것은 늦은감은 있으나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우리사회에서도 기초과학의 연구열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한편 나아가서는 그들 세대가 2000년대의 한국의 과학기술을 빛내줄 귀중한 일꾼이 되어 줄 것을 확신한다. 물론 그것은 10년후 또는 20년후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위해 지금부터 이러한 일에 과감히 투자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10년, 20년후에 그러한 성취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